

금융위기 이후 중간임금계층의 변화

- 2011년 우리나라 중간임금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임금근로자의 41.0%로 나타나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고용사정이 좋지 않았던 2009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¹⁾
 - 2011년에는 2009년에 비해 955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였으나 이 중 중간임금계층은 262천 개에 불과함.
 - 반면 상·하위 임금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에 비해 각각 0.4%p,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의 양극화 현상이 금융위기 때보다 확대된 것으로 확인됨.
- 성별로 보면 남성·여성 모두 중간임금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남성의 경우 상위 임금계층은 비중이 증가한 반면 여성은 하위 임금계층의 비중은 증가하고 상위 임금계층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최근 중간임금계층의 고용비중 및 고용규모 변화

(단위: %, %p, 천 명)

		고용비중				고용규모			
		2009	2010	2011	'09-'11 비중변화	2009	2011	증감	
전 체	하위임금계층	22.5	22.2	23.0	0.5	3,599	3,891	292	
	중간임금계층	41.8	42.9	41.0	-0.8	6,675	6,936	262	
	상위임금계층	35.7	34.9	36.1	0.4	5,709	6,109	401	
성별	남성	하위임금계층	13.0	12.7	12.7	-0.3	1,199	1,227	28
		중간임금계층	45.0	46.5	44.3	-0.6	4,133	4,283	149
		상위임금계층	42.0	40.8	43.0	1.0	3,856	4,150	294
	여성	하위임금계층	35.3	34.9	36.6	1.3	2,400	2,665	264
		중간임금계층	37.4	38.0	36.5	-0.9	2,541	2,653	112
		상위임금계층	27.3	27.1	26.9	-0.3	1,853	1,960	107

주: 농·임·어·광업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부가조사 원자료.

1) 여기에서 중간임금계층은 농·임·어·광업을 제외한 전 산업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시간당 중위임금의 67~133% 수준을 차지하는 계층으로 정의함. 산업중분류·직종중분류 셀을 하나의 일자리로 보고, 이 일자리가 시간당 중위임금의 67~133% 수준을 차지하는 경우 중간임금계층으로 계산하였다.

- 최근 고용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50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중간임금계층의 비중은 2009년에 비해 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50대 연령층에서는 중간임금계층의 비중이 1.7%p 감소한 반면 하위임금계층의 비중은 2009년 대비 2.0%p 증가함으로써 이들 연령층에서 일자리의 양은 증가하고 있으나 일자리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50대 연령층의 고용증가세는 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연령층의 서비스업 부문 중간임금계층의 비중은 2009년 대비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 연령층에서 하위임금계층의 비중은 2011년 40.9%로 나타나 2009년 대비 1.1%p 증가한 반면 상위임금계층의 비중은 2.1%p 감소함.
 - 50대 연령층에서 제조업 부문 중간임금계층의 비중은 46.4%로 나타나 2009년 대비 11.6%p나 감소하였으며, 중간임금계층의 고용규모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농·임·어·광업을 제외한 전 산업 임금근로자의 제조업 부문 중간임금계층의 비중은 2009년 대비 10.3%p나 감소하였음.

〈표 2〉 최근 중간임금계층의 연령별 고용비중 및 고용규모 변화

(단위 : %, %p, 천 명)

		고용비중				고용규모		
		2009	2010	2011	'09-'11 비중변화	2009	2011	증감
20~30세 미만	하위임금계층	18.3	18.3	18.8	0.5	628	624	-5
	중간임금계층	43.9	45.3	44.8	0.8	1,507	1,487	-20
	상위임금계층	37.7	36.4	36.4	-1.3	1,294	1,211	-83
30~40세 미만	하위임금계층	11.8	10.9	10.5	-1.3	544	496	-48
	중간임금계층	42.9	44.1	42.4	-0.5	1,976	1,999	23
	상위임금계층	45.3	45.0	47.0	1.7	2,088	2,217	129
40~50세 미만	하위임금계층	21.0	20.4	20.4	-0.6	893	929	36
	중간임금계층	43.4	44.0	41.8	-1.6	1,848	1,903	55
	상위임금계층	35.7	35.5	37.9	2.2	1,520	1,725	205
50세 이상	하위임금계층	40.1	39.0	40.9	0.8	1,415	1,692	277
	중간임금계층	37.3	39.1	36.3	-1.0	1,316	1,501	185
	상위임금계층	22.5	21.9	22.8	0.3	793	943	149

주 : 농·임·어·광업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부가조사 원자료.

〈표 3〉 50대 연령층에서의 제조업·서비스업 부문 중간임금계층의 고용비중 및 고용규모 변화
(단위: %, %p, 천 명)

		고용비중				고용규모		
		2009	2010	2011	'09-'11 비중변화	2009	2011	증감
제조업	하위임금계층	17.4	22.5	23.3	5.8	84	135	52
	중간임금계층	58.0	53.9	46.4	-11.6	278	270	-9
	상위임금계층	24.6	23.6	30.4	5.8	118	177	59
서비스업	하위임금계층	39.8	37.7	40.9	1.1	669	814	145
	중간임금계층	29.6	32.6	30.5	1.0	497	608	111
	상위임금계층	30.7	29.7	28.6	-2.1	516	570	53

주: 농·임·어·광업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부가조사 원자료.

〈표 4〉 상용직의 중간임금계층의 고용비중 및 고용규모 변화
(단위: %, %p, 천 명)

	고용비중				고용규모		
	2009	2010	2011	'09-'11 비중변화	2009	2011	증감
하위임금계층	7.6	8.8	10.0	2.4	695	1,036	341
중간임금계층	41.4	42.6	41.1	-0.3	3,779	4,269	489
상위임금계층	51.0	48.6	48.9	-2.1	4,658	5,086	428

주: 농·임·어·광업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부가조사 원자료.

○ 2011년 임금근로자의 고용은 임시·일용직이 감소하고 상용직의 증가세는 지속되었으나, 상용직의 중간임금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로 고용이 악화되었던 2009년에 비해 감소함.

– 특히 상용직 내의 상위임금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대비 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양질의 고용창출을 위한 제고가 필요함. **KLI**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